

세계도시

2006. 2. 6. 제136호

목 차

도시경영·경제

1. 지하철 테러 방지를 위한 보안강화 조치 (런던)
2. 북경市 신정 휴가기간에 소비 급증 (북경)
3. 관광 및 지역홍보를 위한 옛 문화유명인사 거주지역 안내지도 벽화 제작 (상해)
4. 자격훈련 의무화 추진에 시의원들 분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디지털도시

5. 도시계획정보 공유와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e-planning 정책 (영국)
6. "시민의 방문 없이 정보를!" 웹기반 부동산 등기부 열람서비스 제공 (베를린)

복지·문화

7. 「저출산사회 백서」에 출산율 높은 에도가와區 사례 소개 (동경도 에도가와區)
8. 반사회적 행동을 막기 위한 '존경 프로그램' 시행 (영국)
9. 식품안전을 위한 불량식품 소환제도 시행 (북경)
10. 런던 경제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 현재보다는 미래에 기대를 (런던)

도시환경

11. 도시환경개선사업에 예산 400억원 추가 계상 (런던)
12. 템즈강 고래 출현으로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관심 증가 (런던)

도시교통

13. 교차로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센서 설치 (미국 아리조나州 스캇스데일市)
14. 지하철 차량 자동운전 시스템 도입 (뉴욕)
15. 주차난 지역의 공통주차권제도 실시 (일본 하치오지市)
16. 휴대폰을 이용한 난폭운전 고발 프로그램 운영 (미국 콜로라도州)
17.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1센트 휘발유세 부과 (미국 플로리다州 피네라스 카운티)
18. 운전중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추진 (미국 네브라스카州)
19. 노년층을 위한 준대중교통수단으로 택시 활용 (미국 캘리포니아州 알라메다 카운티)
20. 도시내 맨홀 뚜껑 교체 시급 (일본 후쿠오카市)

도시계획

21. 대중교통/도시공원 중심의 도심 주변 띠형 대규모 개발 계획 승인 (미국 아틀란타市)
22. 도시의 역사성 향상을 위한 로얄마일 보도 재정비 (영국 에딘버러市)
23. 효율적 도시계획 조정을 위한 도시지역계획가 직책 신설 (영국 버밍햄市)

1. 지하철 테러 방지를 위한 보안강화 조치 (런던)

런던시는 지하철 테러 방지를 위해 강화된 보안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임을 최근 밝혔다. 우선 4주간의 시범기간을 거칠 이 계획에 의하면, 공항에서의 보안검색 수준에 준하는 금속물질 검색과 X-ray를 통한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며 역사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카메라도 설치한다. 시범기간에는 동의하는 승객에 한해 검색장비를 통과하게 하고 휴대품도 검색할 예정이다. 예산관계로 이러한 보안강화 조치가 모든 역에서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긴급상황 시 효율적인 통신을 위해 지하철 내 휴대폰 통화가능지역을 계속 넓혀가겠다고 관계당국은 발표했다.

(news.com.com/London+to+test+antiterror+tech+for+commuters/2100-7348_3-6025768.html?tag=my)

2. 북경시 신정 휴가기간에 소비 급증 (북경)

북경시 백화점업계는, 우리나라의 신정에 해당하는 원단(元旦) 기간에 북경 시민의 소비액이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북경 시민의 소비 급증 원인을 구매 패턴이 실용형에서 자기만족형(享受型)으로 변화한 데에서 찾고 있다. 원단 휴가기간 북경 시민의 구매 구조를 보면 평면 TV, 핸드폰, 디지털 제품의 구입 증가가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엔겔 지수가 2000년 36.3%에서 2004년 32.2%로 낮아지는 등 북경 시민의 소비구조가 점점 고도화 되고 있는 가운데, 북경시 상무국은 금년부터 올림픽이 열리는 2008년까지 북경 시민의 소비액이 156조 4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http://www.ben.com.cn/WLZB/20060104/GB/WLZB^1612^15^04R202.htm>)

3. 관광 및 지역홍보를 위한 옛 문화유명인사 거주지역 안내지도 벽화 제작 (상해)

역사적으로 루쉰, 모순 등 문화계 명사들이 많이 살았던, 상해시 홍구區 사천북로의 관리사무소(四川北路街道)에서 문화계 유명인사들의 옛 거주지 지도 벽화를 제작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지도벽화를 보고서야 이곳이 예전에 문화계 저명인사들이 살던 지역임을 알게 된 보행자가 많다고 한다. 뜻밖의 시민 호응에 고무된 관계자들은 앞으로 혁명문화사적 위주의 지도와 우수 古건축물을 알리는 지도를 추가로 그려 여기서 사진도 찍고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http://www.shghj.gov.cn:8080/gh05/front/contentWord.php?contentId=7631>)

4. 자격훈련·교육 의무화 추진에 시의원들 분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2008년 지방선거 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의 모든 시의원들은 자격훈련 교육프로그램을 필수로 이수해야 할지 모른다. NSW주 지방정부부와 지방정부연합은 예산·기획 분야를 포함하는 시의원 자격훈련 교육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며, 2008년 지방선거 직후 모든 시의원에 대한 일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5년 5월, 지방정부부 시의원 교육개발부서가 브레와리나(Brewarrina)시의 시의원 대부분이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하며 주정부 차원의 조사를 의뢰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NSW주 지방정부부의 케리 히키(Kerry Hickey) 장관은 “시의원이라면 시의회가 어떻게 진행되며, 매일 산적되는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또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읽는지 등, 최소한의 자격요건 및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기 개발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NSW주 지방정부연합의 콜 설리반(Col Sullivan) 회장은 “시의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추자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겠다. 물론 일부 시의원에게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되기는 하나 모든 시의원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굳이 강제적으로 시의원 의무교육제를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시의원 의무교육제 실시 여부는 2006년 7월 확정될 예정이다.

(Sydney Morning Herald, 2006.1.17)

한줄 뉴스

- 북경시 2005년 현재 인구 1530만 명을 2010년까지 1600만 명으로 통계키로
 - 1자녀 정책 강화, 호적관리제도 강화, 유동인구관리제도 혁신, 신개발지로 인구분산 유도
- 파리시 인구 계속 증가: 2005년 214만 4,700명으로 1999년에 비해 0.9%(1만 9,400명) 증가
- 미국 뉴올리언즈시 도시재건 청사진에서 도시전역을 지대의 고저에 따라 3개 권역으로 구분
 - 고지대인 1권역은 우선적 재개발, 홍수범람예상지역인 저지대 3권역은 개발 억제 및 공원 확대
- 미국 메사추세츠주 고밀도 복합용도 개발 권장을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 법안 통과
- 북경시 2005년 일인당 평균 지역총생산액(GRDP) 5,000 달러 돌파
- 상해시 중국항천과기그룹과 전략적 협작을 통해 우주항공산업기지 건설 추진 계약 체결
- 상해시 2010년 엑스포 지역내 전시·서비스용 건축물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재사용하기로
- 미국 솔트레이크시, World Leadership Forum(런던 소재)이 최고 환경프로그램 운영 도시로 선정
- 샌프란시스코시 청정연료 사용 택시에 공항통행료 면제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2005년 기준 “도로상 차량 운전자의 10%가 휴대폰 사용” 조사결과 발표

5. 도시계획정보 공유와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e-planning 정책 (영국)

영국정부는 지방정부와 정부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도시계획(e-planning)'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근 '디지털 도시계획 프로그램 위원회(e-Planning Programme Board)'를 설립했다. 디지털 도시계획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도시계획을 네트워크로 연계해 도시계획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일반시민도 도시계획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부처, 기업, 시민이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공동체 형성에 주민참여를 적극 활용하자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도시계획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①도시계획 포털, ②도시계획 사례 제공 서비스, ③도시계획관련 온라인 법령 서비스, ④개발계획 민원 및 행정시스템의 4가지가 있다.

(<http://www.odpm.gov.uk/index.asp?id=1143309>)

>>> 전문가 검토의견

서울시는 이미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중앙정부는 현재 전국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구축·배포하고 있다. 시스템 연계와 통합 문제는 도시행정업무의 광역적 효율성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도시계획국)는 이미 구축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활용성과 주민참여 제고를 위한 고도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본 영국사례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 신상영 디지털도시부 부연구위원(syshin@sdi.re.kr)

6. "시민의 방문 없이 정보를!" 웹기반 부동산 등기부 열람서비스 제공 (베를린)

베를린주 도시개발부는 e-Government 구현의 일환으로 "시민의 방문 없이 정보를!" 이라는 슬로건 아래 2005년 12월 22일부터 웹기반 지리정보서비스인 LIKA(부동산 등기부 열람 서비스)를 일반시민이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새로운 서비스에는 자동 부동산 지도(ALK)와 자동 부동산 등기부(ALB)가 포함되며 가격, 회계서비스가 탑재되어 일반시민도 쉽게 정보검색과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관계당국은 특히 부동산 중개인이나 평가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베를린주 도시개발부 보도자료, 2005. 12. 22)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512/nachricht2132.html)

7. 「저출산사회 백서」에 출산율 높은 에도가와區 사례 소개 (동경도 에도가와區)

동경도 에도가와區에는 구의 독자적 제도로 ‘보육엄마제도’가 있다. 보육엄마제도를 통해 1세 유아 보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공립보육원에서는 1세 보육을 담당하지 않는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기본 보육료가 월액 1만 4000엔으로 보육원 보육료에 비해 저렴하다. ‘무력무력 스쿨’이라는 방과후 아동반을 발전시킨 시책도 펼치고 있는데, 낮시간 보호자가 부재중인 아이들뿐 아니라 초등학생이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세대의 주민과 교류함으로써 사회성을 키울 수 있다. 에도가와區는 2005년 합계특수출산율이 1.32로 동경도 23구(동경도 평균은 1.01) 중 가장 높다. 이러한 성과가 인정되어 에도가와區 사례가 내각부가 2005년 12월에 펴낸 「저출산사회 백서」에도 실렸다.

(www.city.edogawa.tokyo.jp/topics/shosika.html)

>>> 전문가 검토의견

‘보육모제도’는 시설보육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을 줄이고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영아들을 보살핀다는 점에서 시설보육의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보육모의 자격과 보육환경, 보육내용 등 보육의 질을 관리하고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확대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방과후교실과 유사한 ‘무력무력 스쿨’은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한 사회성 증진효과가 돋보이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고립되기 쉬운 저소득층이나 결손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가족보육담당관실 등에서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선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sunjakm@sdi.re.kr)

8. 반사회적 행동을 막기 위한 ‘존경 프로그램’ 시행 (영국)

영국정부는 2006년 1월 10일,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가정이나 이러한 가정의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존경 행동계획(Respect Action Plan)’을 내놓았다.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지도하지 못하는 가정에게 임대주택 축소, 일시적인 주택폐쇄, 문제 아이에 대한 학교차원의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반사회적 행동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시도한다. 정부는 문제가정의 부모를 교화하는 수업에 5200만 파운드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9. 식품안전을 위한 불량식품 소환제도 시행 (북경)

북경市는 2006년부터 불량식품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회수제도를 시행한다. 북경市 식품안전 관공실에 의하면 2005년도 9만개 식품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95.27%의 합격률을 보였는데, 이 기록은 전년에 비해 0.37% 향상된 것이다. 북경市는 2006년부터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부문의 중점지역에 대해 1만 5000개의 감시시설을 설치해 식품안전에 대한 돌발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구축한다. 불량식품 강제퇴출제도와 더불어 식품시장 진입회복 평가제도를 동시에 실시해 발생가능한 손실과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北京晚报, 2006. 1. 3)

10. 런던 경제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 현재보다는 미래에 기대를 (런던)

1월 19일 런던시가 발간한 「런던 경제와 여성」(Women in London's Economy) 보고서에 따르면, 런던 거주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영국 내 타 지역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나, 향후 10년 이내에 생길 새로운 일자리(50만명)의 70%는 여성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 한다. 런던 시장 켄 리빙스톤도 보고서 발간기념 정책토론회에 초청된, 런던의 여성사업가 500명 앞에서 향후 10년간 새롭게 성장할 산업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모두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미래에 여성이 두각을 나타낼 경제 분야로 자영업, 소매업, 보건 및 교육산업을 꼽았다. 전통적으로 런던 경제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나타내주는 지표(임금 격차, 소득계층별 성별 차이)는 전국 평균을 밑도는 등 영국 내 어느 지역보다 런던에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전국 평균치가 18%인데 비해 런던의 경우 24%에 달한다.

(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6894)

(http://www.london.gov.uk/mayor/economic_unit/wile/index.jsp)

한줄 뉴스

- 미국 미주리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시민의 교통투자 분야 관심도 측정
- 미국 애리조나주 스캇스데일(Scottsdale)市 미국 최초로 고속도로 상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 미국 인디애나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벌칙금 부과 검토
- 런던市 지하철 2006년 1월부터 현금 편도 승차권 가격 2파운드에서 3파운드(약 5,600원)로 인상
- 시드니市 2005년 시 재정의 7.9%나 되는 2780만 달러를 주차위반 범칙금으로 거둬들여
- 일본 신주쿠區 노면 밀 함몰 부분 찾기 위해 지중레이더 기술을 활용한 전용탐사차 이용

11. 도시환경개선사업에 예산 400억원 추가 계상 (런던)

런던시장 켈 리빙스턴은 런던시의회 녹색당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예산회계연도 2006/2007년의 런던市 환경예산에 약 400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런던을 지속가능한 세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리빙스턴 시장이 제안한 세부사업에는 ①재생가능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무배출시설로 지어질 에너지 최고 효율의 건축기술 지원, ②기존 런던 푸드 프로그램에 지속가능한 음식 등 추가, ③2010년까지 수소 자동차 70대 보급, ④대기질 개선을 위해 런던 대도시권 역내 배출저감지대(Low Emission Zone) 지정, 매연이 심한 대형 화물차량과 대형 버스 통과시 부과금 부과, ⑤녹색 가정 만들기 센터(Green Home Advice Center) 설립,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 및 시설 확산, ⑥민간단체인 London Cycle Network과 공동으로 자전거 이용 촉진 정책 추진(자전거 주차장 추가 설치, 자전거 타기 훈련 지원) 등이 있다. 현재 예산심의 중인 친환경정책 예산확대 계획에 시의회 의원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6924)

>>> 전문가 검토의견

런던市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서울시도 환경선진도시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특히 서울도심지역을 오염물질 저배출지역(Clean Zone)으로 지정·관리하게 되면, 교통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과와 교통계획과에서 역점사업으로 공동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친환경 건축물 또는 에너지절약형 건물 신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현행 서울시 에너지 관련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유도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woonkim@sdi.re.kr)

12. 템즈강 고래 출현으로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관심 증가 (런던)

대도시 중심부에 멸종위기종인 대형 고래가 나타나는 진귀한 풍경이 1월 20일 런던 템즈강에서 펼쳐졌다. 거의 1세기만에 템즈강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거대 포유류인 북방병코고래는 무리에서 떨어져 길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며, 언론의 뜨거운 취재 열기와 함께 런던 강변으로 고래를 구경하러 몰려든 인파가 천여명에 달했다.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고래 구조작업에도 불구하고 회생시키기 어려웠던 고래의 죽음을 계기로 고래 및 멸종위기종 보호 민간단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고래 구조작업을 진두지휘한 민간단체인 British Divers Marine Life Rescue 그룹에 담지한 시민성금은 약 1800만원을 넘어섰다.

이미 1957년에 자연사박물관 관계자가 템즈강 연안을 '죽은 강'이라며 사망선고를 내린 바 있으나 1960년에 20년 계획기간의 템즈강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천수질 개선 계획이 시작되면서 워털루 다리 근처에서 물개가 노닐고 121여종의 어류가 서식하는 하천으로 되살아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부유물질이 많아 외관상 흙탕물 같아 보이는 템즈강의 수질을 불신하는 시민이 아직 많아 관계당국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템즈강 관리주체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템즈워터(Thames Water)사'와 환경청 등이며, WDCS(Whale and Dolphin Conservation Society)와 같은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생물다양성 보호활동을 한다.

(<http://news.bbc.co.uk/1/hi/england/london/3499984.stm>)

(<http://news.bbc.co.uk/1/hi/england/london/4633878.stm>)

(<http://www.wdcs.org/dan/publishing.nsf/allweb/BE0A78C9CC88DCDF80257101003B4A4C>)



런던 시내 중심의 빅벤, 국회의사당 건물 앞을 지나가고 있는 북방명코고래

(<http://news.bbc.co.uk/1/hi/england/london/4631396.stm>)

13. 교차로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센서 설치 (미국 애리조나주 스캇스데일시)

미국 애리조나주 스캇스데일(Scottsdale)시는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통과 시 신호시간을 연장해주는 센서를 설치해 운행 중이다. 현재 1개 교차로에 설치해 시범운영 중인 이 센서는 "SmartSensor Advance"라 불리며, 교통신호의 황색신호시간에 교차로로 진입하여 다음 적색신호의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는 차량에게 좀더 긴 신호시간을 부여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게 한다. 이 센서는 교차로 주변의 차량대수와 교차로 진입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이를 신호시간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극심한 혼잡상황에서보다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활용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시 당국은 이 센서를 교통사고가 많은 교차로 3개 지점까지 늘려 설치해 성능을 점검할 예정이다.

(www.azcentral.com/community/scottsdale/articles/1219sr-interesection19Z8.html)

>>> 전문가 검토의견

교차로 신호 운영에서 안전 상 문제가 되는 “딜레마 존”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서 첨단 감지 기술을 이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특히 감속거리가 긴 트럭을 대상으로 시행했을 경우,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청색 신호를 보고 진행중인 운전자가 정지선에 이르기 전 황색 신호가 현시되었지만 이미 속도가 빨라서 최대 감속하더라도 정지선에 정차할 수 없는 상황은 흔히 경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를 상충 교통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황을 자동으로 판단하여 진행신호를 연장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교통량이 많은 혼잡상황의 경우, 이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야간시간대 또는 교통량이 적은 지방교차로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모바일폰을 센서로 활용하여 지방국도에서 이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데, 향후 국내에서도 지방국도를 대상으로 시행이 예상된다.

/ 손기민 도시교통부 연구위원(kmsohn@sdi.re.kr)

/ 김원호 도시교통부 부연구위원(wonor@sdi.re.kr)

14. 지하철 차량 자동운전 시스템 도입 (뉴욕)

미국 뉴욕시 지하철 당국은 최근 지하철 차량 자동운전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지하철 차량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과속으로 판단될 경우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어 안전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지하철 운영 효율도 크게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차량 가동율이 20% 정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기간에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한 노선에서만 자동운전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으로 있어, 실제

로 이 시스템으로 승객을 태운 채 운영하는 차량은 일부구간 2대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당국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 자동운전 시스템을 점차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www.newsday.com/news/local/wire/newyork/ny-bc-ny--computerizedsubwa0118jan18,0,6774575.story?coll=ny-region-apnewyork)

>>> 전문가 검토의견

무인운전 시스템은 국내에서도 첨단 열차제어체계 도입과 함께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건설교통부는 분당선을 대상으로 시범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중량전철에 이 시스템이 도입된 사례는 아직 없고, 뉴욕 지하철에서 선도적으로 실험에 성공한 상황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시스템 도입 시 차량 가동율 20% 증대는“특정노선에 대해 동시에 운행가능한 총 차량 대수”의 증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무인운전 시스템 도입의 최대 난제는 기술사항이 아니라 도시철도 운영주체내의 노조 반발 문제다. 뉴욕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노동 중재에 의해 시스템의 연내 채택이 무산된 상태이다.

/ 손기민 도시교통부 연구위원(kmsohn@sdi.re.kr)

15. 주차난 지역의 공동주차권제도 실시(일본 하치오지市)

일본 하치오지(八王子)市는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JR하치오지 역 주변에 「공동주차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국가사업의 하나로 3월 중순까지 시범기간을 두고 4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주차난 지역에 주차장과 가맹점을 모집해, 가맹한 가게에게 판매액에 따라 주차권을 서비스한다. 따라서 대형점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개의 주차장을 가지게 되어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혼잡이 상당히 해소될



것을 보인다. 市는 휴대전화나 네비게이션으로 주차장 위치나 만차 정보, 요금, 영업시간 등을 제공해 지역내 주차장 이용 편차를 줄이고,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가지 정체 완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http://www.yomiuri.co.jp/e-japan/>)

>>> 전문가 검토의견

본 시책은 가로변을 다용도로 이용하는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지역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블록별 혹은 지구/지역별로 주차수요를 관리할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극히 낮은 지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차량운행자가 공동주차권을 이용한다면 극히 제한된

장소에서의 주차이용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주차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다만 기존 주차요금에 비해 상대적 할인이 있어야 할 것이며,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차정보 네트워크화 및 정보화도 추진되어야만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이우승 도시교통부 연구위원(wooseung@sdi.re.kr)

16. 휴대폰을 이용한 난폭운전 고발 프로그램 운영 (미국 콜로라도州)

미국 콜로라도州 도로순찰대는 휴대폰을 이용한 난폭운전 고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한해에만 4만 9000여 건(1일 평균 134건)의 고발 신고가 있었는데, 이 수치는 6년 전에 비해 50%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상습적인 난폭운전자를 단속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 차량이 세번째 고발되면 1차 경고가 주어지고, 4번째 고발되면 2차 경고가 주어진다. 5번째 고발이 접수되면 마지막 경고와 함께 경찰이 직접 차량운전자를 면담하고, 운전자의 운전 행태를 직접 점검하여 필요하면 벌칙을 부과한다.

(www.rockymountainnews.com/drmn/local/article/0,1299,DRMN_15_4316764,00.html)

17.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위해 1센트 휘발유세 부과 (미국 플로리다州 피네라스 카운티)

미국 플로리다州 피네라스(Pinellas) 카운티 당국은 지역내 교통혼잡 완화방안으로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센트의 휘발유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는 이 방안은 승인될 경우 2007년부터 20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연간 약 390만 달러의 재정수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재정수입을 통해 카운티 당국은 지역내 시 정부들이 각각 담당해오던 교통관제 역할을 카운티가 흡수해 통합운영할 예정이며, 감응식 신호기 설치, 교통 정보판 설치 등을 통해 교통혼잡 완화를 꾀할 예정이다. 일부 시가 교통관제 기능의 카운티로의 이관을 반대하고 있어 시 정부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www.tbnweekly.com/content_articles/121705_fpg-02.txt)

18. 운전 중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추진 (미국 네브라스카州)

미국 네브라스카州는 운전 중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이 규제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는 다양한 행위에는, 휴대폰이나 iPod 등의 무선기기 사용 행위, 읽고 쓰는 행위, 애완동물을 다루는 행위, 적재된 물건을 정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어 휴대폰 사용에만 한정된 기존 단속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의하면, 적발된 운전자는 100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운전 중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다양한 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법규가 휴대폰 사용 규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하다는 점이 최근 부각되면서 이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www.yankton.net/stories/011806/news_20060118023.shtml)

19. 노년층을 위한 준대중교통수단으로 택시 활용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 카운티)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Alameda) 카운티 지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Livermore Amador Valley Transit Authority(LAVTA)는 최근 늘어나는 노년층의 대중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택시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특히 노년층과 장애인을 위한 호출형(Dial-a-Ride) 밴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보완하는 교통수단으로 택시 활용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사업의 활황을 기대하며 이 조치를 반기는 상황이다. 지난 2년간 호출형 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34%나 증가했으며 카운티 당국은 2020년까지 노년층 숫자가 2배로 증가해 향후 수요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승객은 호출형 대중교통 서비스 요금으로 1.25 달러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www.contracostatimes.com/mld/cctimes/news/transportation/13607891.htm)

20. 도시내 맨홀 뚜껑 교체 시급 (일본 후쿠오카市)

일본 후쿠오카市는 1만여 곳의 맨홀 뚜껑 파손 현황을 조사한 결과, 4%에 달하는 곳에서 균열이나 마모 등의 이상을 확인했다. 국토교통성은 맨홀 뚜껑의 「표준사용연수」를 30년으로 정했으나 이상이 발견된 곳의 80%는 30년이 경과되었으며, 이 중에는 1930~1957년에 설치된 콘크리트제와 구형 주철제(1965~1972년 설치)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0년 이상 된 맨홀 뚜껑은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언제 교체되었는지 불명확한 상태이며, 파손 때문에 통행인이 맨홀에 떨어지거나 주행차량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수도보전과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오래된 맨홀 뚜껑 교환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교체를 진행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http://www.yomiuri.co.jp/e-japan/fukuoka/>)

21. 대중교통/도시공원 중심의 도심 주변 띠형 대규모 개발 계획 승인 (미국 아틀란타市)

미국 아틀란타 대도시권의 폴톤 카운티 당국은 최근 아틀란타市 역사상 최대 규모 개발계획으로 알려진 "Beltline" 개발을 승인했다. 이 Beltline은 아틀란타市를 감싸는 띠형의 구역으로, 향후 이 지역을 따라 5.26km²의 녹지공간, 2.83km²의 기존 공원 재정비, 약 42km의 산책로, 35km의 대중교통 노선이 신설된다. 이외에 2030년까지 3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5만여 채의 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 당국은 특히 이 개발사업을 통해 산재한 도시공원을 대중교통과 보행로가 연계된 녹지축으로 만들어 아틀란타 시민이 즐겨 찾는 쾌적한 녹지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억 달러로 예상되는 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 당국은 2억 4400만 달러에 이르는 채권을 2010년까지 발행할 계획이며, 개발 주변지역을 세금특수구역(tax district)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산세 전부를 개발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www.ajc.com/metro/content/metro/atlanta/1205/22metbelt.html)

22. 도시의 역사성 향상을 위한 로얄마일 보도 재정비 (영국 에딘버러市)

영국 에딘버러市는 역사적인 거리인 로얄마일(Royal Mile) 지역의 역사성을 높이고 보호하기 위한 보도 재정비에 150만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계획은 2007년 봄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계획에 따라 로얄마일 지역에 과거 에딘버러 전통을 그대로 담은 패턴으로 조약돌들을 보행자바닥에 깔기 위해 에딘버러 세계유산(Edinburgh World Heritage)단체와 스코틀랜드 역사 담당 관계기관에 자문을 얻었다. 이와 함께 현재 자동차 사용지역을 보행자전용화하는 계획도 진행하고 있다. 이 계획을 담당하는 시 관계자는 새로 단장한 로얄마일이 도시의 역사성을 더욱 높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시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3. 효율적 도시계획 조정을 위한 도시지역계획가 직책 신설 (영국 버밍햄市)

영국 버밍햄市는 각 區에서 진행중인 도시계획의 통합과 효율적인 조율을 위해 '도시지역(city-region) 계획가'라는 직책을 신설했다. 도시지역계획가들은 버밍햄市와 코벤트리, 더들리, 샌드웰, 솔리힐, 왈셀, 울버햄턴區에 각각 임명될 예정이다. 같은 광역시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연계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다. 도시지역계획가가 임명되면 앞으로 각 구간에 일관된 도시계획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도시지역계획가는 리더십을 가지고 각 구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한편 공동 프로젝트도 관리하는 고도의 정치외교적 수완이 필요한 직책이다.

(www.planningresource.co.uk/pp/news/index.cfm?fuseaction=FullDetails&articleUID=7b7bddba-9450-45b6-8e3d-1f5ceeaa461e&e=1)